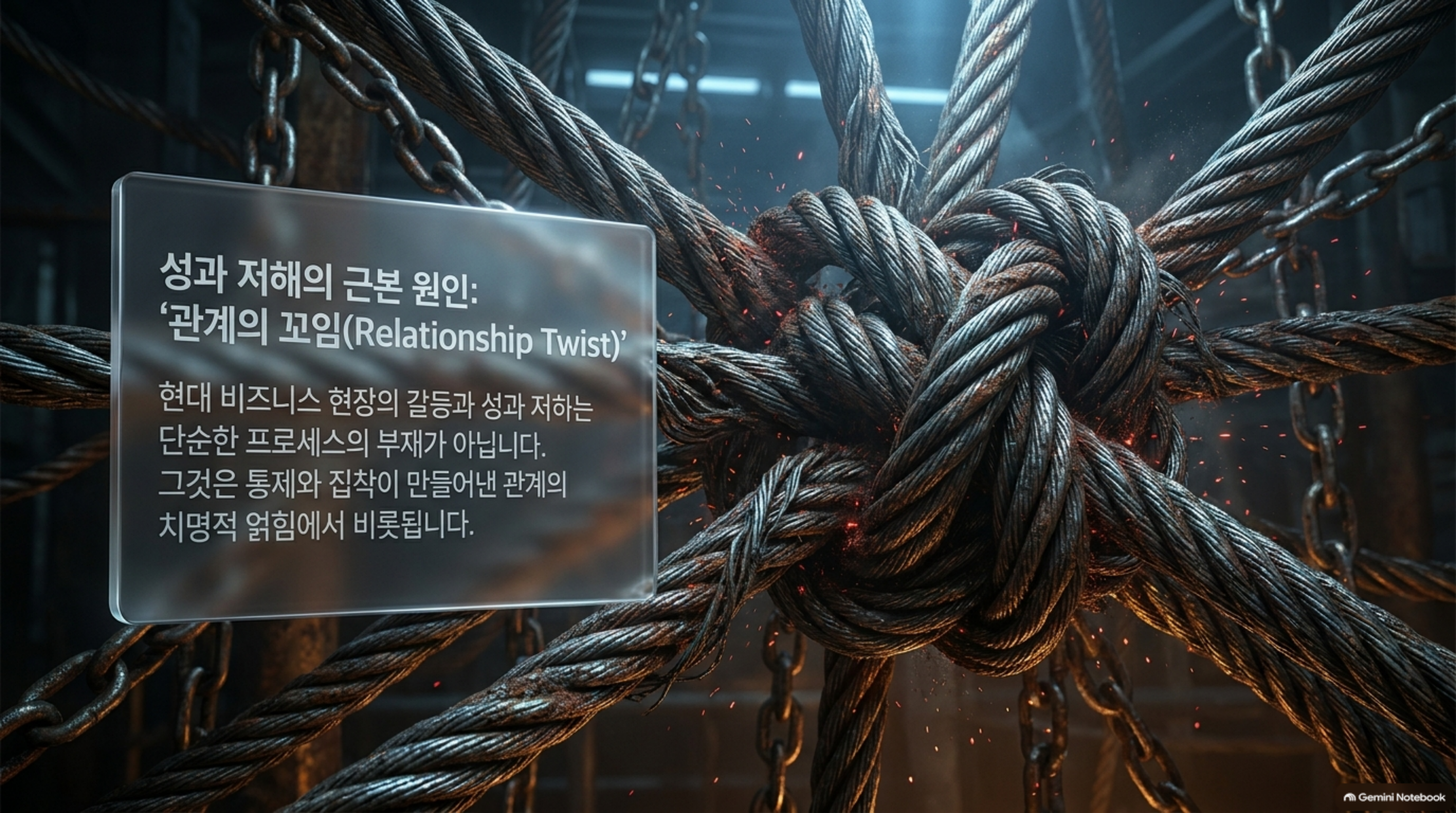




케노시스(Kenosis) 리더십

비움과 헌신으로 혁신하는 조직 문화



성과 저해의 근본 원인: '관계의 꼬임(Relationship Twist)'

현대 비즈니스 현장의 갈등과 성과 저하는
단순한 프로세스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와 집착이 만들어낸 관계의
치명적 얽힘에서 비롯됩니다.



파괴적 통제가 부른 비극: 소유욕이 낳는 파괴

전교 1등을 강요하며 9시간 동안 가해진 매질,
그리고 피가 달라붙지 않게 입혔던 '특수 바지'.

리더가 구성원을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는
'대리 만족의 소유물'이자 '도구'로 여길 때,
조직 내 심리적 파멸이 시작됩니다.



탐욕의 병리학: '하루파그모스(Harpagmos)'

어원

움켜쥐다, 빼앗다, 강탈하다 (헬라어)

경영적 정의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취하려는 욕망.
조직의 목적보다 리더 개인의 기득권, 명성,
성과 가로채기에 집착하는 병리학적 상태.

비우지 못한 자들이 맞이하는 조직적 공멸



이기적 사익 추구:
재난(홍수) 속에서도
시신의 금반지를 탐하는 행위



과대망상과 독선:
기술적 혁신(역청)을 가졌음에도
'내 이름'을 내세우다 분열된 바벨탑



기득권에 대한 집착:
좁은 항아리 속 바나나를 놓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히는 원숭이 함정

리더의 야망: 방향성의 결정적 차이

구분	건강한 성취 (Strategic Growth)	하루파그모스적 탐욕 (Harpagmos)
핵심 목적	조직의 미션 달성 및 구성원의 성장	리더 개인의 명성 및 기득권 유지
태도 양식	주어진 '분깃(Portion)'에 감사하며 헌신	강제로 움켜쥐고 타인의 성과를 강탈
의사결정	공익과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성	과대망상적 자기중심성 및 독단적 통제
조직 결과	신뢰 기반의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	관계의 꼬임과 심리적 고통의 확산

패러다임의 전환: 케노시스(Kenosis)의 원리

자기 비움과 '종의 형태'를 취하는 전략적 겸손 (Operational Humility)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빌립보서 2:5-11).
리더의 직위는 특권적 권한이 아니라, '조직을 섬기기 위한 역할'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역설: 비움으로 얻는 거대한 영향력

상승 (Organizational Agility)

비워진 공간에 채워지는 구성원의 자발적
팔로워십(Followership)과 폭발적인 의사결정 속도

하강 (Leader's Kenosis)

강압적 통제와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위

리더가 스스로를 가장 낮출 때, 조직은 그 리더를 지극히 높이게 됩니다.

내면의 의사결정: '두 마리 늑대' 피딩(Feeding) 전략

매 순간 당신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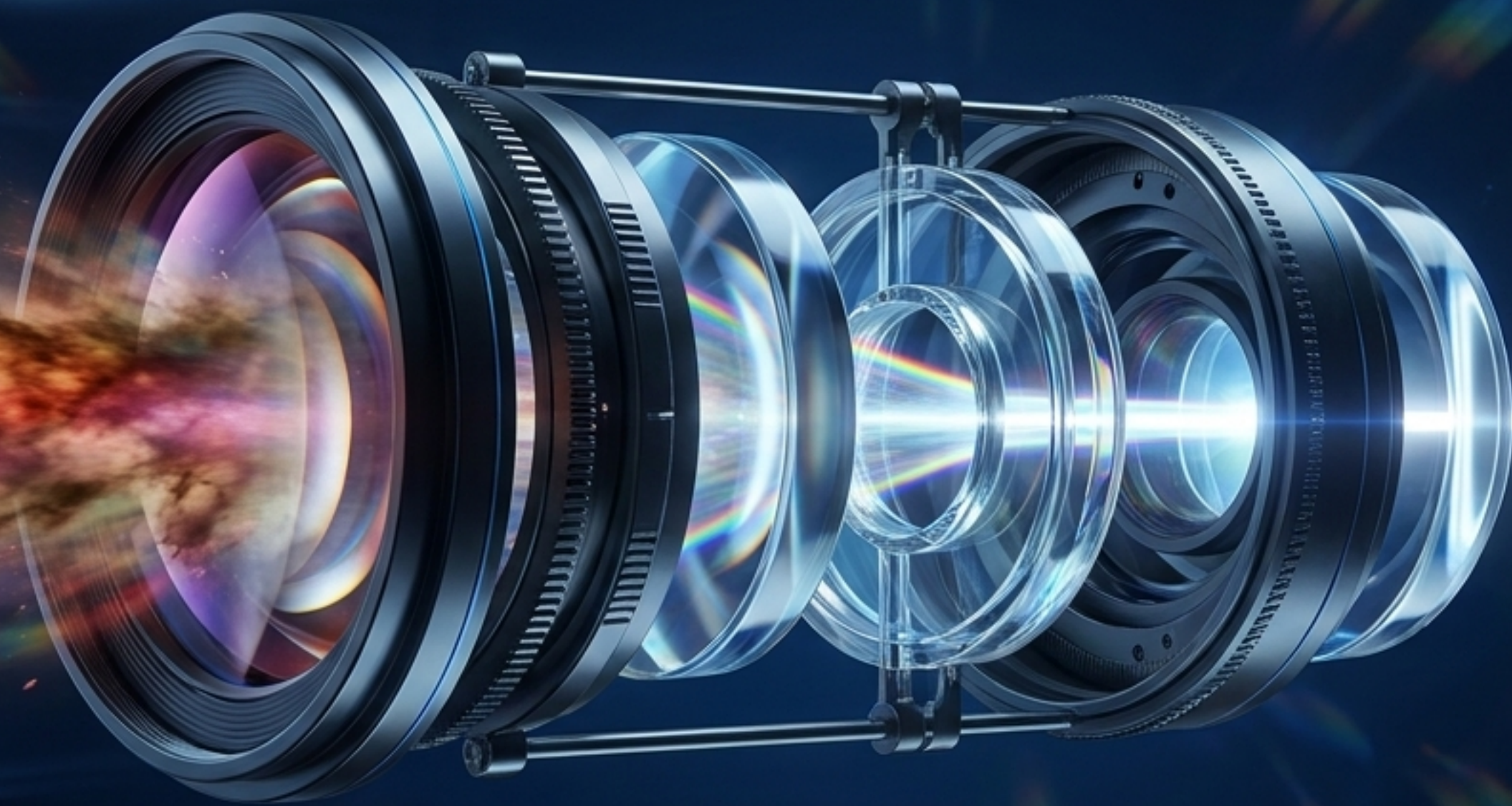
[굶겨야 할 늑대 - Harpagmos]

분노(Angry), 질투(Envy), 후회(Regret),
탐욕(Greed), 거만(Arrogance)

[육성해야 할 늑대 - Kenosis]

기쁨(Joy), 평화(Peace), 사랑(Love),
소망(Hope), 겸손(Humility), 동정심(Empathy)

실천 프레임워크 1: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자기 부인



사익과 에고(Ego)

자기 부인 (Deny Himself)
결정의 순간, 편향을 제거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조직의 공익과 보편적 가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24)

실천 프레임워크 2: 조연 리더십 (Supporting Role)

기업의 미션은 흥해야 하고,
리더의 자아(Ego)는 쇠해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

이것이 나의
미션이다
이것이 나의
리더십이다

실천 프레임워크 3: 재무적 정직성과 '분깃'에 대한 자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

비정상적 재물에 대한
집착 (Harpagmos)

나의 의사결정은 돈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주어진 '분깃(Portion)'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

비움과 채움의 조직 선순환 모델 (The Kenosis Mechanism)



비움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비워낸(Emptying) 바로 그 공간에, 조직을 살리는 진짜 가치(Filling)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역학 시스템입니다.

🏆 케노시스 리더십 핵심 체크리스트

매일 아침 리더의 내면을 비추는 6가지 질문

리더가 비워내야 할 3가지 (Emptying)

1. **기득권**: 나의 직위가 당연한 권리라는 특권 의식
2. **과대망상**: 내가 아니면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독선
3. **개인적 욕망**: 조직의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탐욕

리더가 채워야 할 3가지 (Filling)

1. **공익과 가치**: 조직의 존재 이유와 보편적 정의
2. **겸손 (Humility)**: 시장의 현실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함
3. **동정심 (Empathy)**: 구성원의 고통을 읽어내는 깊은 공감 능력



비움으로 완성되는 리더십의 영광

진정한 통제력은 통제를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케노시스 리더십은 희생이 아니라 조직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설'입니다.

하루 파그모스적 움켜쥐기를 멈출 때,
비로소 조직은 숨을 쉬고 혁신은 시작됩니다.

리더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궁극의 전략,
바로 비움(Kenosis)입니다.